

속초공항 시설확충 건의안

의안 번호	181
----------	-----

발의년월일 : 1993. 8. 3.

발 의 자 : 최창영의원외 11인

□ 주 문

지난 7월 26일 아시아나 항공기의 목포공항 착륙과정에서 빗어진 대참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 비통함을 금치 못하는 것은 이번사고가 천재가 아닌 인재였다는 점에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정부측에 항변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공항에 대한 일제 점검에서 드러났듯이 전국 14개 지방공항중 김포, 제주, 울산, 여수를 제외한 대다수 지방공항은 당초 군용비행장으로 출발하여 현재 군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활주로가 짧고, 적기에 노출되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이·착륙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항공기 이·착륙에 필요한 안전시설인 전자착륙유도장치(I L S) 등 관제장비도 갖추고 있지 않고 지금까지 위험을 무릅쓴 운항이 이루어 지고 있었음은 폭약을 안고 불속에 뛰어들 격이었음을 생각할때 경악을 감출 수 없으며 사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할 것입니다.

항공전문가들은 목포 뿐만 아니라 특히 속초 공항은 수용능력이 모자라고 안전시설 미비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공항중의 하나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90년대 들어 폭증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설악권의 국제공항 건설은 국가차원의 관광사업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94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설악산을 찾는 외래 관광객을 위해 현재의 열악한 공항시설로는 수용능력이 지난하므로 현실적으로 단기간내에 국제공항건설이 어렵다면 속초공항의 안전 계기 시설과 활주로 확장사업만이라도 우선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설악산을 관광특구로 지정개발하자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설악권 관광개발은 이제 영북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통일에 대비한 금강산 ~ 설악산 연계개발을 염두해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간 6백여 만명이 찾는 설악권에는 매년 국내외 관광객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항공기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9월에는 아시아나 항공기의 취항이 예정되기도 하였으나, 이에 따르는 제반시설의 미비와 수용능력의 절대 부족 뿐만아니라 금년 7월들어 결항률이 40%인 점을 미루어 볼때, 공항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국제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이런점들이 개선되지 않아 이번 참사와 유사한 재앙이 발생된다면 정부측의 무사안일에 대한 책임이 추궁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방관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이번사고를 계기로 영북지역 주민과 이지역을 찾는 다수의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안락하며, 편리한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속초공항이 시설·규모면에서 대폭적인 확충이 이루어 지기를 관계당국에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 제안이유

○ 아시아나 항공기의 목포공항 착륙 과정에서 빚어진 대참사를 보며 지방공항의 대부분이 활주로가 짧고, 관재장비가 미비하여 사고 재발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특히, 속초공항의 경우 해마다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폭증하고 있어 운항 횟수의 증가와 더불어 올 하반기에는 아시아나 항공기의 취항이 예정되고 있으나 7월들어 결항률 40%가 말해 주듯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에 미달하고 있어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임.

○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영북지역 주민과 이지역을 찾는 다수의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안락하며, 편리한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속초공항의 시설·규모가 대폭적인 확충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하는 것임.